

# 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길 조성 방안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 Theme Trail District Planning for the Regional Activation -Case study on project of Trail construction each of the government agencies-

김상범\* · 최자운\*\* · 정대영\*\*\* · 김은자\*\*\*\*

Sang Bum Kim · Ja Un Ch'oi · Dae Young Jeong · Eun Ja Kim

### Abstract

Theme trail construction should be changed from existing form which connects line to line, or point to line. It should be developed into area form. The project of Trail construction must be converted in area form. The aggregate of the points which is a base element of walk is a line, and the harmonious connection of various line is the area. The close relationship with points and lines is important to operate the project of trail construction in area form effectively.

Subject of the project of Theme trail construction of area form must become the village residents which are being contiguous in trail. They must operate management and about trail. The project of Trail construction of area form the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e-mail: landlife@korea.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교신저자). e-mail: jauni@hanmail.net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e-mail: hogi9267@hanmail.net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e-mail: artmac@korea.ac.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e-mail: kej@korea.kr

plan making is established and if the subjects which, will operate and manage that place are decided upon according to theme must construct the trail of the wide area concept which connects the trail of that trail and neighborhood. If becomes like that local resident and the citizen will be able to coexist with mediation of Trail. If the project of Trail construction of village resident leading is propelled applying rural amenity resources in a way, the trail model which one phases advances could be presented for ecological, economical and cultural.

주요어(key words) : 지역 활성화(Regional Activation), 테마길(Theme Trail), 어메니티자원(Amenity Resources)

## 1. 서론

주 5일 근무의 정착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연 회귀로의 욕구와 환경·생태교육 및 체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8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한국관광공사, 2009), 당일 여행방문 목적<sup>1)</sup>에서 ‘여가/위락/휴가(61.9%)’, ‘친구/친지방문(2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당일 여행방문지 활동에서는 ‘자연명승/풍경감상(44.2%)’, ‘휴식/휴양(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이어 국민들은 여행지 선택시 자연경관(35.8%)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으며, 이어서 볼거리 다양성(24.7%), 여행 경비(9.9%) 등의 순으로 고려되어

1) 여행방문 목적에서 친구/친지방문은 친구/친지의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사교적 행사 참석을 의미하며, 여가/위락/휴가 방문은 관광, 쇼핑, 스포츠 및 문화행사 참가, 레크레이션 및 문화활동, 트레킹 및 등산 해변과 산에서의 휴가, 크루즈, 잼블링 참가, 여름캠프, 신혼여행 등을 의미함(한국관광공사, 2009).

지는 요인들이 도출되었고, 연령별로는 40~50대는 자연경관을, 10~20대는 볼거리 다양성을 여행지 선택의 고려요인으로 뽑았다(한국관광공사, 2009). 이렇듯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건강을 살피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험형 문화관광 및 친환경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관람형 대중관광에서 역사문화·자연생태의 체험, 교육 등 가치지향적 여행문화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Chhetri, P.: Arrowsmith C., & Jackson, M., 2004). 특히, 건강과 웰빙을 동시에 추구하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관광형태로 등장하여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전명숙, 2009), 자연환경과 마을 길을 직접 체험하며 걷기 여행을 위주로 새로운 관광유형을 제시한 제주 올레길의 성공으로 걷고 싶은 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처별 테마길 조성 사업의 사례분석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활용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2)</sup>

## 2. 이론적 배경

### 2.1. 길의 개념

길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이다.<sup>3)</sup> 즉, 길

2) 지역활성화란 지역의 “자원(Resources)”, 자원을 활용한 “활용(Activities)”, 자원을 활동에 연결짓기 위한 “계기(Triggering)”라는 3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도출된 지역의 활력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서영진, 1994).

3) 네이버(www.naver.com) 국어사전.

은 인간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든 통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공적, 자연적, 문화적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연결공간을 지칭한다. 이러한 길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소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출현하지 않는 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을 이어오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화를 거쳐 사회가 급변하면서 길의 형태 및 기능은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김종혁, 2004).

길은 영어로 Way, Path, Trail, Passage, Tracks, Road, Street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길 조성 및 계획과 관련된 논의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트레일(Trail)이다(김기원, 2009). 트레일의 의미 역시 다양하다 보니 영국에서는 자연탐방로(Nature trail), 전원 탐방로(Farm trail), 도시지역 트레일(Town & country trail) 등으로 세부 구분하기도 한다(전명진, 1994).

기존 연구에서 트레일(trail)은 목표지점으로 가는 안전하고 적합한 통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Douglass, 1975), 모든 트레일이 목적지(destination)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하이킹 트레일은 이용자를 비스타(vista), 독특한 지점, 그리고 다채로운 환경으로 보행자를 이끌어줌으로써 심미적 즐거움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다(김기원, 2009).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에서의 길의 유형 및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부처별 길의 유형 및 개념

부처명	분류기준	유형	개념
환경부 (2007)	탐방 생태문화 탐방로 탐방로 접객기차에 대한 세분화	탐방 진입로	· 국가급 생태문화탐방 자원과 탐방로로 접근할 수 있는 주변도로로 강길, 해안길, 숲생태길로 구분. · 탐방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차량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 도보, 자전거, 대안교통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이 있음.
		탐방로	· 탐방자원으로부터 탐방자원으로의 진입 및 접근도로, 자전거도로, 대안교통로, 관찰로, 보도 등의 도로를 포괄하는 개념.
산림청 (2010)	길의 용도	임도	·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여 설치한 도로
		등산로	· 산림과 그 주변에 위치하면서 인간, 동물 또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행의 통로
농촌진흥청 (2009)	어메니티 자원	산림문화체험숲길	·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하면서 지역고유의 산림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조성하는 장거리 도보길
		그린로드(Green Road)	· 마을운용평가 우수 농촌진흥테마마을을 테마에 따라 연결한 길
문화체육 관광부 (2008)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역사형	· 과거에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어 온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옛길
		예술형	· 당대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생활형	· 일상적인 시민생활과 관련 있으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습관,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을 형성하는 양식과 내용에 관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
		생태형	·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한 길
국토해양부 (2010)	자원과의 연계성	복합형	· 문화형+생태형
		해안순례길	· 해안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길
행정안전 부 (2010)	지역사회와 도시민의 요구수용	지역공간 체험형	· 지역공동체가 보유한 고유한 고유의 지역자원을 거점으로 상호 연결, 탐방객이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길
		자연 친화형	· 산, 바다, 강, 호수 등 자연과 밀접한 생태·웰빙형 길
		도심생활문화형	· 도심 외곽 둘레길, 도심 내 강변, 호수, 문화거리 등 도시민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산책형 길
		트레킹길	·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트레킹 코스
		명상·사색형	· 호젓한 오솔길이나 숲길을 대상으로 심신을 쉬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철학과 사상이 있는 길

\* 자료 : 부처별 보도자료 참조.

환경부에서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탐방 잠재가치가 충분한 강, 해안, 숲을 생태문화탐방권역으로 설정한 뒤 그곳에 이를 수 있는 탐방지원로 및 진입로를 개설하고 최종적으로 자전거도로, 대안교통로, 관찰로, 보도 등을 포괄하는 탐방로 개념을 제안하였다. 산림청에서는 길의 양상 및 용도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고 있고, 농진청에서는 마을과의 연계가 밀접한 것이 다른 길 유형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문화부에서는 길의 콘텐츠(contents)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해양자원과의 연계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는 지역사회와 도시민의 요구를 고루 수용한 길 개념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해당 부처의 성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길 개념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길이 가지는 지역과 지역의 연결,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에는 아직 그 개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2. 길 관련 선행연구

길 조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탐방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탐방로 계획 및 조성과 관련된 연구는 탐방로의 성격에 따라 생태자원을 이용한 것과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한 탐방로 조성계획, 그리고 길을 찾는 여행객에 대한 방문 동기,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길 활용 연구 등이 있었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탐방로 조성계획은 주로 국립공원 자연학습관찰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1992년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사 지구에 산림생태계 해설을 중심으로 한 자연학습관찰로가 처음 조성된 이래로 현재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치악산, 소백산, 가야산, 월악산, 다도해 해상,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에 자연학습관찰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조

우, 2009).

조규남 등(2009)은 지리산 자연관찰로 이용자 설문 조사 후 이용행태에 따른 만족도를 도출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최충호 등(2005)은 전라북도 내 자연휴양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책로, 산림용임도, 등산로, 자연 관찰로를 파악하고 각 길에 따른 이용 만족도를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여건 및 인문환경 여건을 조사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탐방로로서의 가치를 검토한 연구로 군자산 자연관찰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김홍은, 박재인, 1993), 고성군 일대를 중심으로 한 트레킹 코스 조성계획(김정아, 1996), 백두대간 트레킹 코스 계획(정인경, 1999) 등 지역별, 자연적 특성에 따른 길 관련 조성사업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서울과 구도심의 가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명진(1994)은 서울시 도심부 역사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궁 답사 탐방로를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역사 탐방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김복영(1996)은 김해시의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에서의 문화지구 지정,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이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도시가 가지는 역사, 문화적 요소들이 도시공간상에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연결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길이 단지 물리적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길이 가진 역사성과 근대성을 살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옛길 복원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다. 민현석(2010)은 부산 및 대구 등의 옛길에서 과거의 역사를 찾아내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장소마케팅을 통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간 길 조성 관련 연구자들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관찰로라는

주제로, 서울 구도심, 고궁을 대상으로는 길의 주제를 역사탐방로로, 문화지구,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주제로, 옛길 복원을 위해 길의 역사성, 근대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마을 등지역 커뮤니티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길 자체의 연구로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처별 길 관련 사업의 기본계획서를 수집하여 길의 특성과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홈페이지나 부처별 내부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은 <표 2>과 같다.

<표 2>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 주요 내용

부처 기관명 /사업명	주요시설	세부내용	비용	법령	관리기관
환경부/ 전국단위 생태문화탐방 로 조성계획	생태시설, 안내시설, 휴게시설, 경관시설	'08년~'17년(10년), 2,500km 조성 '08년(3개소), '09년(6개소), '10년도(13개소)	1,630억원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및 지자체, 지역의 관련주체
산림청/산림 문화체험길	-	'07년~'16년(10년) 1,500km 조성 7개 권역 총 12개소	녹색자금 100억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Green Road 개발연구	-	1차 사업 9개 권역 11개소 66개 마을	4억 5천만원	「농촌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해당지역 지방자치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안내시설	'08년~'16년 : 1,200km 조성 7개소	1,000억원 (기금 430, 국고285, 지방비285)	『산림보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 관광부 및 지자체, 지역의 관련주체
국토해양부/ 해안순례길	-	78개 연안 시·군·구6,000km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토 해양부 및 지자체, 지역의 관련주체
행정안전부 /명품녹색길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자전거 종합서비 스센터	'10년 시군구별 명품 녹색길 1개소 이상 시범조성	400억원 (시도에서 신청활용)	『자연환경보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해당지역 지방자치 단체

자료 : 부처별 기본계획서 참조.

###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6개 부처별 길 관련 사업내용을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부처별 길 관련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길의 특성과 내용을 유형화하여 재분류하고 지도에 표기하여 각각의 길 노선의 시각화를 통한 연계방안을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리산권역의 유형별 테마길 구성에 대한 연계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4. 결과 및 고찰

### 4.1.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올레길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정부 기관뿐만 아니

〈표 3〉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 현황

부처명	사업명	관광대상	길 소재	활용방안/기본방향	특징
환경부 (2008)	진국단위 생태문화 탐방로	생태관광	생태·문화 자원	생태·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중심의 길	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바닷길
산림청 (2009)	산림문화 체험숲길	생태관광	자연체험숲길	국민의 자연체험 활동 수용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숲길 네트워크 조성	'10년 사업명칭을 '트레킹숲길'로 변경
농촌진흥청 (2009)	그린로드 (Green Road)	농촌관광	농촌관광	농촌어메니티자원을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경관, 먹거리, 농촌체험, 축제, 숙박 등으로 구분
문화체육 관광부 (2010)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문화관광	문화· 역사자원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자원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구·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하는 도보중심의 길	문화형, 생태형, 복합형(역사문화형/예술문화형/생활문화형)으로 구분
국토해양부 (2010)	해안순례길 (진행 중)※	생태관광	해양문화 및 역사	해안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 관광길로 조성	해안누리길로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 (2010)	명품농색길 (진행 중)※	농촌관광	지역단위 고유자원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려 관광자원화하고, 주민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마련	지역공간 체험형 녹색길 등 5개 유형 제시

자료 : 부처별 기본계획서 참조. ※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처의 내부자료를 참조함

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처별 사업의 목적이나 배경, 길 만들기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탐방객 수가 2000~2006년 간 40배 증가하는 등 생태탐방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늘어나는 생태탐방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이관규 등, 2010).

산림청은 고령화 사회 및 가족단위 여행의 증가로 등산의 소외계층인 노약자,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을 위한 보행활동 중심의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임도, 등산로, 숲길 등을 활용하고 자연 휴양림 및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500km에 이르는 <산림문화체험숲길>을 7개 권역 총 12개소(지리산 숲길, 금강 소나무 숲길 등)가 조성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정될 지역을 토대로 여건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 조사 중에 있다.

기존의 등산로가 정상을 향한 수직적 산행이었다면, 산림문화체험숲길은 수평적 개념의 자연체험형 도보산행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트레킹의 안전성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 이용자를 위한 쉼터, 전망대 등 편의시설 설치, 등산 안내인, 숲 해설가 배치를 통해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녹색생활공간을 그 지역 테마에 맞게 연계하고 농촌경관, 먹거리, 전통체험 등 농촌관광의 수요증가를 수렴하여 농촌의 공익적인 가치인식과 농가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린로드(Green Road)> 발굴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9).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사업<sup>4)</sup>은 도보관광 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과 녹색성장 에 부응하는 친환경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옛길을 찾고 가꾸어 간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길인 삼남대로, 영남대로, 관동대로 상의 구간들을 포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전시관 등도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스토리텔링,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배움과 체험프로그램 제공, 홍보 등 콘텐츠 위주의 사업을 추진 하고, 역사·문화·예술 위주의 탐방로 조성을 통해 단순 경관 위주 탐방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문화·역사자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 점이 타 부처 길 만들기 사업과 차별되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78개 연안 시·군·구 6,000km 해안에 자연 적으로 형성된 산책길, 마을길과 같은 옛길을 해양역사문화와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해안순례길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친환경적 관광길로 관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국민들에게 명품녹색길 유형과 정보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 단위 고유자원을 활용한 형태의 길을 제시하고 지역 간 연결 네트워크와 통합 정보망 구축하고자 <명품녹색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2.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의 분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 주도 길 만들기 사업의 개발

4)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이야기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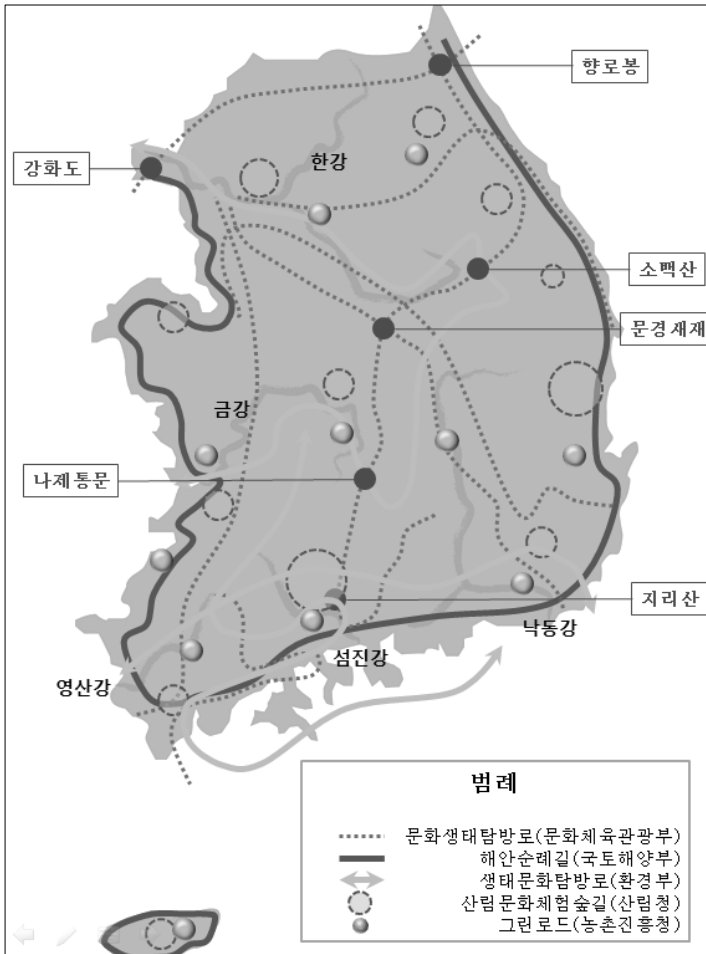
동기 및 기본 방향은 공통적으로 주 5일제 근무 정착 및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도보관광 수요 증가, 아울러, 친환경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 대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 부처에서는 공통적으로 길을 개발함에 있어 자연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4〉 각 부처 길 만들기 사업의 유형분류

유형	관리부처/명칭	주요내용	
문화중심형	문화부/ 문화형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유산, 당대문화 예술, 의식주 등 경험	
	행안부	지역공간체험형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체험
		명상·사색형	호젓한 오솔길, 숲길 체험
생태중심형	문화부/ 생태형	강, 해안, 산림의 생태, 문화, 역사 경험	
	환경부/ 탐방로	강,해안, 숲의 생태 탐방	
	행안부	자연친화형	산, 강, 바다길 체험
		트레킹길	지역이 보유한 자원 활용한 트레킹 체험
복합형	산림청/ 산림문화체험숲길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 문화 역사 경험	
	문화부/ 복합형	문화형과 생태형의 결합형	
	행안부/ 도심생활문화형	도시민이 도심 강변, 문화거리 등 체험	
	농진청/ 그린로드	여러가지의 농촌어메니티자원 체험	
	국토부/ 해안순례길	해안 역사문화, 자연자원 경험	

각 부처에서 제시한 길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문화중심형(문화부의 문화형, 행안부의 지역공간체험형, 명상·사색형), 생태중심형(문화부의 생태형, 행안부의 자연친화형, 트레킹길),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복합형(환경부의 탐방로,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숲길, 문화부의 복합형, 행안부의 도심생활문화형, 농진청의 그린로드, 국토부의 해안순례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조성 길 현황을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각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 통합계획도

부처별 사업계획도를 통합해보면 국토해양부의 해안순례길은 동·서·남해안 중심의 선형으로 뻗어있으며, 문화부 문화생태탐방로는 향로봉, 소백산, 문경새재, 지리산, 나제통문, 강화도를 거점으로 우리나라의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등 옛길을 중심으로, 환경부 생태문화탐방로는 산, 바다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로 조성되고 있다.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숲길과 농진청 그린로드는 각각 지리산, 금강 등과 농촌 어메니티자원이 풍부한 마을 단위를 거점으로 조성하였다.

통합계획도에 제시된 길 형태는 점(Spot), 선(Line), 면(Area)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환경부는 탐방가치 중심의, 국토해양부는 해안역사문화와 자연경관 중심의, 산림청은 지리산, 금강 등 산림자원 중심의 선(Line) 형태이다. 반면, 문화부는 향로봉, 강화도 등의 점(Spot)과 삼남대로 등의 선(Line)이 결합된 형태이고, 농진청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점(Spot)을 테마에 따라 연결한 선(Line) 형태로 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금강이나 한강 주변권역, 강원지역에서는 각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섬진강 주변 권역에서는 산림문화체험숲길, 문화생태탐방로, 그린로드, 해안순례길, 생태문화탐방로 등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길 만들기 사업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상호연계와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질 길 만들기 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기존의 선 형태, 점과 선이 결합된 형태의 길들이 혼

제되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면(Area) 형태의 길 만들기 사업으로의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걷기의 기본 요소인 점(Spot)들의 집합체가 선(Line)이고, 여러 개의 선들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것이 면(Area)이다. 면 형태의 길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점들과 선들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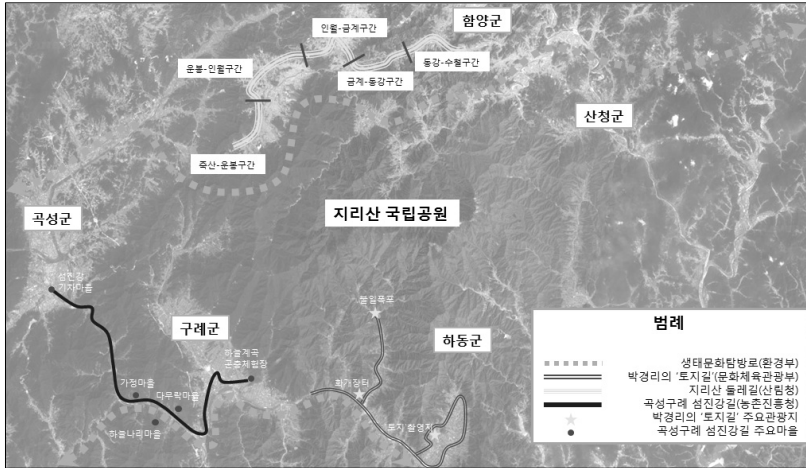
예를 들면, 지리산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생태문화탐방로와 문화부의 박경리 토지길, 그린로드의 곡성구례 섬진강길, 산림청의 지리산 둘레길이 밀집되어 있다. 이 중에서 그린로드의 오른쪽 끝 지점인 하늘계곡 곤충체험장에서 박경리 토지길의 화개장터 지점으로 섬진강 및 생태문화탐방로를 따라 연결하면 두 길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고 평행을 달리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과 생태문화탐방로 사이에 세로 방향으로 연결해주는 여러 개의 길들이 만들어진다면 직선으로만 이어진 각각의 길을 걷는 이의 의도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걸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선 중심의 길과 점과 선이 결합된 형태의 길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에 대한 시각을 면(Area) 형태로의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길 만들기 사업을 면 형태로 추진할 경우 기존의 점, 선 형태의 길들을 연계시키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코스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조성하고 있는 길 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는 시·군·구·마을이 주체가 되어 길을 개발·복원하며, 정부부처에서는 정책 추진방향과 지침 수립, 노선 지정·지원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지역의 마을주민은 길의 정비 및 관리 참여, 방문객들에게 해설 및 편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자 관계가 아직 체계화 되지 않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기보다는 정부, 지자체 중심으로 노선 및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여 방문객들이 길을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요에 못미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각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의 중첩(지리산 권역)

두 번째로 길 만들기 사업의 주체는 인접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되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은 다양한 선과 점이 아울러져 이룬 형태로 테마형 선과 목적에 따른 점들이 서로 연관성을 이룰 수 있도록, 면은 광역적 형태의 지역(Area)과 권역(Zoon)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 지역적 형태의 면은 광역적의미로 2-3개 이상의 권역이 모여서 지역을 이루어야하며 여기에서는 어메니타자원의 보전과 개발의 권역관리 뿐 아니라 방문자관리, 서비스관리, 자원 및 시설관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계획을 이루어야한다. 따라서 면(Area)형태의 광역적 의미는 부처별 중첩되는 지역으로, 길 만들기 사업이 균형적 개발을 위한 공간관리적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권역적 형태의 면은 지역적인 형태보단 소규모이지만, 어메니티자원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의 관리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메니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곳으로 타 권역과의 차별화된 자원개발과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 형태의 길 만들기 계획이 수립되고 그곳을 운영, 관리할 주체들이 확정된다면 테마에 따라 그 길과 인근의 길을 잇는 광역 개념의 길을 구축하여 당일 여행을 1박 2일 여행일정으로, 다시 2박 3일로 확장 하는 등 여행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길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도시민이 더불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면(Area) 형태로의 길 만들기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마을 주민 주도의 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한 단계 나아간 길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국립공원 자연학습탐방 프로그램 및 자연해설. 국립공원 관리공단.
- 김기원. (2009). 숲길 계획의 개념적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3(2), 11~24.
- 김종혁. (2004). 역사에서 ‘길’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68, 331~345
- 김재준. (2003).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림·임업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임업 연구원.
- 김정아. (1996). 트레킹코스 조성계획 : 고성군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복영. (1996). 김해시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조성계획,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홍은. & 박재인. (1993) 군사산 자연관찰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농업과학연구 10(2), 89~107.
- 농촌진흥청. (2009).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Green Road 개발 연구 완료 보고서. 농촌진흥청.
- 민성환. (1998). 자연관찰센터 및 자연관찰로 조성계획,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 민현석. (2010). 스토리텔링을 통한 옛길 가꾸기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2), 205~212.
- 문화체육관광부. (2006). 한국 문화콘텐츠·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방안 중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from <http://www.mcst.go.kr/>
- 서영진. (1994).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24.
- 이관규, 조소희, & 장갑수. (2010) 청도 운문 신화랑 에코트레일 조성계획. 2010년 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7.
- 이주희. (1998). 통고산·청옥산 자연휴양림 자연관찰로 개발사례, 산림휴양연구회 2(1), 37~45.
- 장혜영. (1999). 생태관광지의 야생동물탐방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 전명숙. (2010). 슬로우관광의 탐색적 고찰 -제주올레투어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경영학회지, 8(1), 109~123.
- 조우, 최송현 & 유기준 (2009). 변산반도 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해설 매체 이용평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2), 127~134.
- 전명진. (1994). 서울시 도심부 역사탐방로 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경. (1999). 백두대간 트레킹 코스 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휘. (2008). 광역생태탐방로 노선선정 계획기법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조규남. & 문현식.(2009).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이용 행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43(1), 9~16.
- 제주관광공사. (2010). 제주 올레길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제주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추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환경부. (2008).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 환경부.
- 최충호, 박종민, & 김선영. (2005). 전라북도 자연휴양림내 숲길 현황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9(4), 1~14.
- Chhetri,P.;Arrowsmith,C.;Jackson,M; (2004). Determining hiking experiences in nature-based tourist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Vol 25(1), 31~43
- Douglass, R. W. (1975). Forest Recreation. 2nd Ed, Pergamon Press, 184~194.
- Roberts, L and D. hall. (2001). Rural Tourism and Recreation : Principles to practice, CABI publishing, New York.

논문투고일: 2010. 8. 5  
1차수정일: 2010. 8. 27  
2차수정일: 2010. 9. 13  
게재확정일: 2010. 9. 17